

황성규 차관 “이번주가 방역 분기점 철도 방역관리에 만전”

- 30일 서울역 찾아 사각지대 없는 방역망 구축에 만전 강조 -

-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특별방역관리주간을 맞아 4월 30일(금) 서울역을 방문하여, 철도역사 및 열차 방역실태 등을 점검하고,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황성규 차관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사와 열차 방역 현황, 출·도착 승객 동선 분리, 거리두기 2.5단계 방역 강화방안 등 방역대책을 보고 받은 뒤, “코로나-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”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아울러 “이번 특별방역관리주간은 코로나-19 제4차 유행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분기점”이라면서 “엄중한 방역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, 사각지대 없는 방역망 구축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고 면밀하게 관리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- 이어,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방문한 황성규 차관은 “해외 입국자 KTX 전용칸 수송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”면서
- 해외입국자와의 직접 접촉이 불가피하고,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2021. 4. 30.

국토교통부 대변인